의료인과 정신질환 환자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문제

현재 소통방식은 유리벽에 쓰거나, 마이크를 설치해서 스피커로 대화한다.

항상 마이크를 켜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환자 한명당 한명의 의료인이 붙어서 소통해야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마이크를 작동하는 법도 어르신들이 모를 수 있다.

방안들이 고령자들이 사용하는데 있냐 없느냐, 결국 소통의 문제점

문제가 생겼을 때, 위험한 상황일 때 기존의 소통 방식이 가능한지

* 대안 큰 버튼을 사용한다. Ex 버스처럼
* 격리된 음압병실 바깥의 동료와 소통을 위해
* 유리창 위에 상대가 알아보기 편하도록
* 좌우가 반전된 글자를 적는 의료진"

결국에는 비대면이 가져오는 문제이다.

얼굴을 보고하는 대면 (대신 유리창에 가려짐)

목소리만 듣고하는 비대면

의료계에서는 국내 의사의 진료 내용을 토대로 현지인에게 진료를 받거나, 처방된 약을 보내주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고 하였다.미국 연방보건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공식 보도를 통해 원격의료를 통해 80개 이상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 건강 응급 상황에서 개인이 오디오 및 비디오 기능이 있는 대화형 앱을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원격진료의 원칙과 범위, 의료사고 시 책임 소재 여부,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 제도 개선 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환자 진료에 도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진료 시스템을 보면서 본인인증, 수납, 처방전 발행, 약 배달 등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